



조윤경  
건축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'인테그(Intg)' 공동대표.

1 Task Chair, Supporto 영국 디자이너 프레데릭 스킵이 디자인한 오피스 চে어. 멋스러운데 착석감까지 탁월해 회의실 의자로 사용 중이다. 2 Adjustable Table E1027 by Eileen Gray, ClassiCon 아일랜드 그레이가 1927년 디자인한 사이드 테이블.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 중 하나. 3 Elephant Sofa by Stefano Giovannoni, Ghidini 1961 곡선의 볼륨감이 멋진 소파. 워시리스트에 오래전부터 올려둔 아이템. 4 Brushstroke Sculpture, 이베 공간 안에서의 선 표현에 이끌려 소장하게 된 이베 작가의 조각 작품. 5 Bibendum by Eileen Gray, ClassiCon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 아일랜드 그레이의 압채어. 타이어를 닮은 독특한 형태와 포근한 착석감이 특징이다. 6 다관, 이인수 나만의 찻자리 꾸미기에 빠져 모으기 시작한 다관 중 하나. 7 분청 트레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트레이. 독특한 텍스처가 주는 느낌이 좋아 늘 곁에 두고 사용하고 있다. 8 Armchair, Cherner 1958년 노먼 체르니가 디자인한 의자. 처음 보고 반해 줄곧 생각만 하다 구매했다. 조형적 존재감이 강한데,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린다. 9 Ala, Rimadesio 투명한 글라스의 우드 프레임이 레이어를 이룬 캐비닛. 서랍을 하나하나 열 때마다 안에 담긴 사물이 더욱 특별해질 것 같다. 언젠가 꼭 들고 싶은 이상적인 수납장. 10 Crystal 자연을 닮은 형태와 건물에 어울리는 재료를 탐색하다 틈틈이 모으게 된 수정 결정들. 11 Mozzkito, Ingo Maurer 중학교 때부터 사용한 테이블 램프. 얇은 철사 구조로 이뤄진 장난스러운 형태가 매력적이다.